**기쿠치 계곡의 식물다양성**

기쿠치 계곡은 식물의 다양성으로 유명하다. 4킬로미터 계곡의 아래쪽 끝에서 위쪽 끝까지 해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에 걸쳐져 있다. 방문자 센터가 있는 계곡 아래쪽 끝은 해발 500미터 정도이지만, 계곡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해발 약 800미터다. 계곡을 올라가면 식생이 상록활엽수 삼림에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의 낙엽활엽수 삼림으로, 그리고 한랭한 상류 지역에서는 너도밤나무 숲이 주가 되는 삼림으로 서서히 변화해감을 알 수 있다.

방문자 센터 주변의 따뜻한 숲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목으로는 짙은 녹색의 잎은 향기가 좋고 광택이 있으며 세 가닥의 독특한 잎맥이 있는 **생달나무**(Cinnamomum yabunikkei), 딱딱하고 질긴 가죽 같은 성질의 잎 뒷면이 흰빛을 띠는 데서 이름이 붙은 **참가시나무**(Quercus salicina), 3월부터 4월에 걸쳐 꽃잎이 없는 붉은 꽃이 무리지어 피는 **조록나무**(Distylium racemosum) 등이 있다.

산책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로는 계류 주위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며, 계곡 내의 나뭇가지나 바위에서 2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선명한 녹색의 커튼처럼 드리워진 **기요스미이토 이끼**(Barbella flagellifera)와 축축한 바위에서 잘 자라고 담뱃잎을 닮은 커다란 잎이 있는 **이와타바코**(Conandron ramondioides)가 있다. 이와타바코는 여름에 옅은 보라색의 별 모양 꽃이 핀다.